

## “철학은 삶이 숨쉬는 저잣거리로 나와야”

“여러분들 안데르센의 ‘별거벗은 임금님’ 읽으셨죠? 그 동화에서 임금이 옷을 벗고 다니는데, ‘정말 웃 웃 멋있습니다’하고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죠... ‘별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국민들처럼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권력자에게 웃이 멋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겠죠.”(“철학을 다시 쓴다”중에서)

좋은 세상이란 어떤 세상인가? ‘좋은’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2013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통치자의 물음에 자신있게 “있다” “없다” 또는 “좋다” “나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

환경 출신의 윤구병 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가 쓴 ‘철학을 다시 쓴다’는 철학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아울러 서양의 존재론을 우리말 이야기로 풀어쓰는 데 초점을 뒀다.

철학은 뿌리를 찾고 근인(根因)을 캐는 학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대표작은 ‘존재와 무’다. 우리말로 하면 당연히 “있다” “없다”다.

철학이 어려운 학문으로 단정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려운 말로 기술되기 때문이다. 상아탑 안에 갇히면서 학자들의 전문물이 된 까닭도 크다. 존재와 무 같은 말 대신 있음과 없음 같은 우리 말로 통용되면 철학은 그리 어렵지 않다.

프랑스 사람은 프랑스 말로, 독일 사람은 독일 말로, 영미 사람들은 영어로 철학을 한다. 모두 제 나라 말로 글을 쓴다. 그리스 철학에서 가장 앞세우는 소크라테스도 장터에서 주고 받는 말로 옹고 그름, 좋고 나쁨을 가렸다.

“이른바 ‘지배계급’은 ‘언어의 폭력’을 ‘제도화’해서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기구’를 만들어 내는데, 이

일에 부림을 받는 이들은 ‘인문학’을 앞세우는 ‘지식인’들이기 십상이다.”

윤구병 교수는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학은 고상한 위치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라는 의미다. 정확하게 철학을 하는 이들이 더이상 강단에서나 쓰는 어려운 말 대신, 우리말로 옹고 그름을 가리라는 뜻이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센 나라에서 들어온 어려운 말을 쓰기 때문에 철학은 어렵고 고리타분한 학문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말하는 ‘있음과 없음’의 철학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진리는 참이고 허위는 거짓이다. “참과 거짓이 뭐냐”고 물으면 세 살배기 어린애도, 까마귀인 시골 어르신도 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떻고, 허위는 어떻고” 하면 말문이 막히고 만다. 우리 땅에서, 우리 말과 생각으로 철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면 실천의 문제가 따른다. 있을 것은 있게 해야 하고, 없을 것은 없어야 한다. 상생, 통합, 배려는 당연히 있게 해야 하고 독단, 독식, 이기는 없게 하는 것이 좋은 세상의 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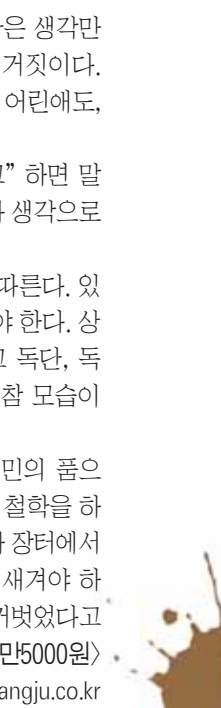
철학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나와 시민의 품으로, 삶이 숨쉬는 저잣거리로 나와야 한다. 철학을 하는 이들은, 그들이 앞세우는 소크라테스가 장터에서 주고 받는 말로 옹고 그름을 가렸음을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이제 ‘별거벗은 임금님’을 별거벗었다고 말하자.

(보리·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철학을 다시 쓴다’

윤구병 지음



## 정갈한 언어에 실린 담백한 서정, 잔잔한 울림

###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함민복 지음

부드러운 서정의 힘을 노래했던 함민복 시인이 신작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을 출간했다.

2005년 ‘말랑말랑한 힘’을 펴낸 데 이어 8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집이다. 그간 시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이들의 삶을 노래해왔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빈한한 일상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여유뿐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정갈한 언어에 실린 담백하고 솔직한 서정은 설익은 수사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시인의 시는 일상의 부박함 외에도 생명, 사물에 대한 예의와 겸손까지 확장한다.



“흔들리지 않으려 흔들렸구나/ 흔들려 덜 흔들렸구나” (“흔들리다” 중에서)라는 표현은 단순한 아이러니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해설을 쓴 문혜원 문학평론가는 “이번 시들은 삶의 환경이 자본주의 사회만이 아니라 시인이 살고 있는 세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거기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 자연까지를 포함한다”며 좀더 시 세계가 객관화되었다는 평을 한다.

함시인은 “열치웠어 시 의자에 푹신 앉아보았으나 시를 얹어보지는 못한 미안한 마음 절감하며 뼈저덕, 또 시집을 엮는다”는 말로 목소리를 높였다.

(창비·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판소리가 즐거운 건 해학이 담겨있기 때문

###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리·판’

김흥식 엮음

“놀보 심사 불작시면... 동네 주산 팔아먹고, 남의 신산에 투장하고, 지관 보면 패월 깨고, 초상난 집 춤추기과 불난 데 부채질, 애 뺨 부인은 배통이 차고 오대 독자 불알 까고, 혼대사에 패차움질, 다 된 혼인 바람 넣기, 장에 가면 역대 흥정, 외상 술값 억지쓰기, 미나리판에 소 몰아넣기, 고추밭에서 매달리며, 애호박에 말뚝박고...”

위 내용은 ‘흥보가’ 중 놀보의 심술이 해학적으로 표현된 대목이다. 해학은 인간 내면에 억압된 심리를 일깨워주는 장치다. 즐거움을 주는 방식을 일컫는다.

판소리는 불과 7, 8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겼던 예술 장르였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소



리·판’은 판소리의 해학적 측면을 조망한다. 판소리가 오랜 세월 질곡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 민족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해학이라는 기제 때문이었다.

책을 엮은 김흥식씨는 “소리꾼의 전통이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판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고 결심했다”며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판소리가 주는 즐거움은 해학 외에도 예술적 진정감, 질리지 않는 깊이와 다양성에 기인한다.

소리꾼에 따라 달라지는 움직임의 역동성(발림)도 관객에게는 즐거움을 주는 요소다. 책은 판소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통해 21세기 판소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한다.

(아젠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국에서 만나는 아랍의 시 세계

### ‘쿠웨이트 여자’

수이드 알 사바 지음

“쿠웨이트 여자는/ 저 치열하고 처절했던 역사적 전투에서도 생존했습니다/ 나의 조국 쿠웨이트여, 당신이 나의 보호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쿠웨이트 여자’중에서)

쿠웨이트 시집이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돼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수이드 알 사바 시인의 2012년 만해대상 문학부문 수상에 기념하고 한국에 아랍의 시 세계를 소개하기 위해 발간됐다. ‘쿠웨이트 여자’는 지난 1986년에 출간된 ‘여자 부스러기’와 ‘내 아들 너에게’ 등 2권의 시집을 합본해 나온 시집이다.



“시는 한 영혼에서 다른 영혼으로 주행하는 재빠른 빛과 같다. 나는 여기서 쿠웨이트의 갈매기가 되어 한국의 강둑으로 날아간다.”

그녀의 한국과 인연은 지난해 만해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아시아엔’ 이사가 발행인이 2011년 쿠웨이트 ‘알라야비 매거진’ 포럼에 참석할 자리에서 수이드 시인에게 시집을 선사받으면서 한국어 발간 작업 토대가 이루어졌다. 번역은 장세원 단국대 교수와 이동은 한국외대 교수가 맡았다. (아시아엔·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혼을 그림책에 투영한 작가들

###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

김지은 외 지음

그림책은 어린이라는 한정된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 함께 즐기는 문화 장르다.

“그림책, 한국의 작가들”은 한국 그림책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29인의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 그림책의 삶이 있는 역사 ‘장배와 아가’의 흥성한 작가들 비롯, ‘강아지똥’의 정승각, ‘엄마랑 뽀뽀’의 김동수에 이르기까지 그림책에 열정을 쏟았던 작가들과 작품세계가 담겨 있다.

아동문학평론가 김지은씨 등 4명의 필진은 모두 작가, 어린이 신문기자, 출판칼럼니스트 등 그림책 관련



전문가다. 이들은 때로는 엄마의 시선으로, 독자의 마음으로, 작가의 시각으로 작품과 작가를 분석한다.

“어떤 맥락으로 책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그림을 이해하는 전혀 다른 감상의 통로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혀 눈에 띄지 않던 모양이 시야에 떠오를 때도 있다.”

김지은씨는 그림책을 볼 때 그림과 나와의 거리에 변화를 주면 늘 보던 맥락이 아닌 다른 맥락으로 세상이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시공사·2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정치인에서 자유인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서

### ‘어떻게 살 것인가’

유시민 지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식이 최선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다.”

친 다섯의 증년 자유인 유시민. 세상의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면서 한 걸음 앞서 시대와 삶의 과제를 고민해 왔던 유시민이 정치시장을 떠나 지식인으로 복귀했다. 자기다운 삶,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로 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시대 어떤 사람도 비껴가지 않는 것이지만, 이른바 ‘힐링 열풍’이 대세를 형성할 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은 ‘번



봉의 시대’에 자기다운 삶을 뜻있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고민이라고 그는 믿고 있다.

책에서 유시민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시기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냈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의 일부부터 대학 시절 야학교사 활동을 거쳐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는지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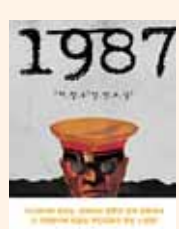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그만두기로 한 이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솔직하고 소박하게 토로한다. (이포리아·1만5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신간

▲**생각, 세 번=**중국의 글이 아닌 우리 선인들의 글에서 뽑은 새로운 명심보감. ‘고전 명구’라는 이름으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들이 홈페이지에 연재한 글 중에 가슴에 새길 만한 글 150편을 뽑아 엮은 책이다. 한두 줄의 명구에 그 구절이 나온 배경을 풀이하고,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기 나누듯 자유롭게 적었다. 가까이에서 두고 하루하루 펼쳐보며 마음에 새긴다면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1만원)

▲**자고 있어, 결이니까=**시인 김경주의 출산 일기. 남자에서 아비가 되어가는 40주 동안 송고와 불안과 고독과 자책과 헌신과 감동을 기록했다. 아내의 출산일기와 다르게 남편의 기록은 아이에 아내가 더해지는 무게를 갖게 된다. 책 표지는 임신한 아내의 둥근 배를 모티브로 했다. 독특한 스타일의 또다른 안쪽 표지는 임신한 아내의 결을 지키는 사내로서 시인 김경주의 느낌을 모티브로 했다. (난다·1만2000원)

▲**1987=**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삼은 하정수의 장편소설이다. 소설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6·29 선언, 야당후보 결탈을 비롯해 3당합당 등을 먼 배경으로 삼아 정치적인 공기를 깔고 시작된다. 다만, 작가는 암시만 줄 뿐 시대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야기 속 인물들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자신이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대에 걸쳐 치열하게



싸우고 고민한다. (《호메로스》1만6000원) ▲**우리는 다른 집에 산다=**고단한 더부살이가 아니라 행복하고 여전한 더불어 살기 코하우징(Co-housing). 코하우징은 단어 뜻처럼 함께 집을 짓는 것이다. 일명 ‘삼미산마을’에서 개인이 감당하던 도시 주거 문제를 여럿이 함께 해결해보자고 의기투합한 아홉 가구가 ‘소행주 1호’를 짓고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더불어 살기를 도모한 과정, 우여곡절 속에 이뤄낸 완공, 공동체 생활까지 속속들이 아우르고 있다. (현암사·1만6000원)

▲**Flavor 맛이란 무엇인가=**우리는 맛의 시대를 살고 있다. 방송사마다 음식 프로가 몇 개씩 있고, 신문도 음식 관련 기사를 쉬지 않고 쏟아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직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관심이 있다. 왜 그런 맛이 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책은 왜, 어떻게 우리가 맛을 느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문당·1만3800원)

▲**스크립트=**스릴러 소설 중에서도 밀도가 높은 사이코스릴러 장르만을 고집하는 독일 작가 아르노 슈트로벨의 국내 첫 소개 작품 ‘스크립트’. 저자는 사건에 휘말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피해자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인한 행악을 벌이는 범인, 범인을 쫓아야 하는 형사의 세 각도에서 절묘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북돋고·1만3800원)

▲**눈개 피는 꽃=**푸른 문학상 수상 양인자 작가의 첫 단편동화. 엄마의 과도한 간섭으로 힘들어하는 국인어의 모습을 통해, 세상에는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듯이,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 (책과콩나무·9800원)

▲**빨리 빨리=**“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빨리빨리 숙제 해!” 새 학기 첫날 엄마의 ‘빨리빨리’에 못 이겨 허둥지둥 실수를 일삼는 하루가 빨리빨리를 잡아먹는 괴물 천천히사우르스를 만들어 주위 사람들을 천천히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오늘부터라도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지켜봐 주도록 엄마에게 교훈을 주는 동화다. (주니어RHK·8500원)

▲**태극기 나는 날=**일 년 가운데 태극기를 나는 날은 언제인지, 각각의 날마다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식 그림책이다.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우리나라 국경일의 뜻과 역사가 쉬우면서도 간결하게 표



현대 있다. 어른들도 설명하기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태극과 사괘의 의미를 쉬운 설명과 흥미로운 그림으로 풀이 주고, 태극그리는 법까지 자세하게 짚어 주고 있다. (한솔수북·1만1000원)

▲**몬스터 과학=**우주의 끝이 어디야? = 팔각덩어리 번개몬이 우연히 우주의 탄생을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우주여행 이야기다. 잘난 척하다

블랙홀 감옥에 갇히게 된 뒤로, 우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별이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많은 사건과 만남을 통해 우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비밀을 우주의 일부가 돼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다. (해그림·1만1000원)

## 어린이 책꽂이

▲**상우네 텃밭 가꾸기=**아이들과 함께 텃밭 가꾸는 즐거움을 담은 그림책. 아이들이 채소 먹기를 꺼려할 때, 흔히 텃밭 가꾸기를 해 보라고 권한다. 날마다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고, 새들로부터 지켜줘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은 후 가족과 함께 맛있는 먹이를 때 내기 기쁨을 전해준다. (길벗어린이·1만1000원)